

경동택배 작업소음 '불면의 밤' 고통

〈전주 중화산 영업소〉



전주 중화산동 소재 경동택배 물류 창고에서 작업하는 중장비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민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물류 창고 주변 도로 곳곳에 화물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있어 출퇴근시 교통정체와 함께 통행 차량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29일 중화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도심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한 경동택배 영업소에서 새벽시간 시끄러운 물류 입고출고시 중장비 차량 등의 작업 소음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동택배 영업소 인근 주민들은 특히 새벽시간 택배 물류차량과 중장비 지게차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전주시와 경찰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혀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동택배 물류 창고는 새벽 2시 30분부터 6시까지 화물을 입고출고하는 25t 대형 트럭의 엔진소리와 화물을 하역하는 지게차(3대)의 후진시 발생되는 경고음 등이 뒤섞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

더욱이 하절기로 들어서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주택이 늘면서 소음

새벽시간 시끄러움 일상화 인근 주민들 불편호소 불법 노상적치물 민원제기해도 시는 수수방관

피해 호소 강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택배사를 찾아 무진동 차량으로 작업을 요구 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육설과 비야냥 뿐이었다"고 호소연하고 있다.

또한 택배사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화물 역시 인근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지만 관할 완산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역주민 박모(60)씨는 "택배사 창고가 사유재산이라고는 해도 새벽시간 작업 차량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게 옳은 것 아니냐"면서 "미안한 표현은 커녕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육설로 대응하고 있

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주민 김모씨는 "전주시가 민원 해결을 위한 공무원 교육은 수시로 진행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생활민원은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주택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시간 소음 단속기준은 45데시벨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과태료 개선 명령 처분이 이뤄진다"며 "민원 현장의 야간소음 현장 조사를 거쳐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택배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에 물류창고 이전을 고려해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우선 당장은 작업 소음을 줄이기 위해 무진동 차량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 미세먼지 '심각'

올해 들어서만 주의보 7회 발령 기준치 두배 이상으로 건강 위협

청정 전북의 명성이 미세먼지로 해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 올린 미세먼지 주의보는 5일(7회) 동안 발령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7일 오전 7시 현재 전북의 일평균 미세먼지(PM10·지름 10㎍ 이하) 농도는 112㎍/㎥를 나타냈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50㎍/㎥)를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0㎍ 정도면 자동차 터널 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 시도별대기오염도

2016-05-26 14:00시 기준 단위:㎍/㎥

관측지점	시간평균
서울	89
강원	80
경기	89
충남	85
충북	102
경북	65
전남	71
부산	69
대구	100
전북	113

※ 본 자료는 도시대기질 측정 전 실시간(시간평균)자료임

앞선 26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158㎍/㎥로 '매우 나쁨'(151㎍/㎥ 이상)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경기도 187㎍/㎥와 광주 171㎍/㎥에 이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날 전북 도민은 자동차 터널 안의 공기를 연이틀 마신 것과 마찬가지였다.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

전북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 지난 1월 2회, 2월 2회, 4월 2회, 지난 7일 등 총 7회에 걸쳐 최소 4시간부터 최대 59시간여 동안 미세먼지 속에서 숨을 쉬어야 했다.

전북의 대기오염이 높은 시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4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전북은 51㎍/㎥로 경기도 54㎍/㎥, 충북 52㎍/㎥에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49㎍/㎥)과 서울(46㎍/㎥)보다도 전북의 대기 오염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대기 중 오랜 기간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흡입되면 황사와 달리 화석 연료 연소, 공장·자동차 배출가스 물질 등으로 구성된다.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 온 데다, 국내 대기 정체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국에서 유입돼 서해상에 축적된 오염 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지름 2.5㎍ 이하)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상지침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

낙후된 지역 상권보호 '맞선'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

한 MOU체결 및 포럼'에서 서울 성동구와 부산 중구, 인천 남구 등 전국 36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낙후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나며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 등이 다

른 곳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저해는 물론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현상까지 불러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협약에 따라 각 도시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을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참여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 및 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 간 상호협력력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관련법 제·개정도 촉구하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어은·도토리골 펌프장 설치 추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쌍다리교 인근 공사 현장에 "어은·도토리골 주민들은 비만 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주시가 어은·도토리골 일원의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문구가 마음에 와 닿는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어은·도토리골은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이곳 주민들은 조금만 큰 비만 내리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 왔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펌프장(5개) 설치를 위해 현재 공사용 가도(임시 교통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전주시는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지만 그 공사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와 같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집행유예기간 중 女 추행 20대 지적장애인 징역형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 또 다시 귀갓길 여성들을 추행한 2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8월2일 저녁 8시23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언니와 함께 걸고 있던 A양(17)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 달 9일 밤 11시30분께 영등동의 또 다른 음식점 앞길에서 귀가하는 B씨(30·여)를 쫓아가 입을 틀어막은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같은 해 7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는 2013년 11월6일 오전 1시께 영등동의 한 삼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설치된 2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그해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5대의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대학교서 절도행각 50대 '덜미'

전주시내 대학교와 체육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대학교 체육관이 열린 운동장 관중석에서 학생

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50)씨를 붙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대학교 운동장 관중석에서 심모(22)씨 등 2명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